

開化期 國語의 語彙에 대하여

— 사라진 고유어 · 한자어를 중심으로 —

閔 賢 植

(江陵大 教授, 國語學)

1.1. 開化期 國語란 國語史의 시대구분에서 古代 · 中世 · 近代 · 現代國語와 대등한 시대구분이 아니라 단지 近代國語 末期에 대한 별칭으로 이 시기(대략 1876년 開港~1910년 合邦전후)는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의 移行上 중요한 과도기였다. 특히 생성 · 소멸현상이 음운 · 통사부문보다 활발한 어휘부(Lexicon)는 개화기 국어에서 큰 동요에 직면한 시기였다. 이는 개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명의 충격을 반영하는 새 단어(word)의 증가와 기존 단어의 형태 · 의미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그 결과 외래어와 새 한자어의 증가 및 상대적으로 고유어의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요가 보이더라도 그 결과는 현대 국어에 와서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개화기 국어는 아직은 그 변화가 느려서 中世 · 近代國語의 基層을 크게 간직한 保守的 性格이 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구어체를 반영한 신소설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2. 개화기 국어의 살아있는 모습은 다른 어느 자료보다도 신소설의 구어체에서 잘 드러나니 言文一致 운동의 결과 文體的 變化가 국어에 나타났다. 또 기존 古代小說이 판소리적 기능을 바탕으로한 律文體이며 聽覺的 機能 위주의 郎讀小說임에 반해 신소설은 散文體이며 視覺的 機能 위주의 默讀小說의 성격을 확립하면서 구어체의 어휘부를 俗語 · 卑語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신소설 자료에서 드러나는 개화기 국어 어휘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아직도 中世·近代國語 어휘부의 기층을 간직한 고유어들과 한자어들이 풍부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대 국어에 와서 대거 소멸되었으니 오늘날은 생소한 고유어와 한자어들이 되었다.

② 문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자어들이 증가하였다.[예 : 學校·教育·政府·電報·招人鍾·鐵道·法官·銀行·關稅·經濟·哲學·調印·停車場……등 주로 日本系 한자어가 借用됨]

③ 외래어도 아직은 소수이나 차용되기 시작하여 人·地·物名 표기가 보인다.[예 : 화성돈(華盛頓, Washington), 비스막(Bismarck), 런던(London), 후로고투(frock coat), 쏘이(boy), …등]

이제 우리는 위 ①, 즉 신소설에서 아직 보존되었으나 오늘날은 사라진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가 살펴본 신소설은 李人植의 〈血의 淚〉(1906), 〈鬼의 聲, 上·下〉(1907, 1908), 〈雉岳山, 上·下〉(1908, 1911), 〈銀世界〉(1908), 具然學의 〈雪中梅〉(1908), 陸定洙의 〈松籟琴〉(1908), 김필수의 〈警世鍾〉(1908), J.S. Gale 부처 번역의 〈턴로력당〉(1895), 李海朝의 〈鐵世界〉(1908), 閔瀆鎬·南宮濬의 〈紅桃花, 上·下〉로서 亞世亞文化社 發行「한국 개화기문학총서」影印本(1978)을 대본으로 하였다. 이제 이들 신소설에서 조사한 고유어·한자어들을 주요한 것만 추려 예문을 통해 예시하고 사전의 뜻도 요약해 덧붙여본다. 단, 예문은 개화기 표기 그대로 적었고 단어 뜻풀이에서는 현대 사전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약간 달라진 표기가 있다. 出典 신소설 제목은 예문위에 소설 제목 첫글자로 略記한다. 지면상 고유어, 그 중에서도 다른 품사보다 어휘변화가 심한 體言·用言·副詞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 한자어 예를 간략히 덧붙인다.

2.1. 體 言

① 계모의 눈살을 마저서 조접이 드던 모양도 눈에 선하고(血 25)

조잡 : 생물체가 탈이 나 제대로 못자라고 생기가 없다. —이 단어는 아직 ‘주접’으로 쓰이고 있다.

②. 무누라의 포달은 제풀에 주러져서(鬼, 上 8)

포달 : 암상이 나 욱하고 대드는 일.

③. 그날로 각처 집 주름을 불러서(鬼, 上 52)

‘주름’(중개업자)은 ‘訓蒙字會’, ‘老乞大諺解’에도 ‘즈름’으로 나온다.

즈름 회 : 儉(訓蒙, 中 3)

하나흔 즈름이러라(一箇是牙子, 老諺下 7a)

④. 네 자근뒵에 와서 드눈을 향눈고느(鬼, 下 9)

드눈 : 불박이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드나들며 일하는 雇工살이. —이 단어는 ‘드나들다’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여귀 이녁 쫄 업소(鬼, 下 30)

‘이녁’(하오할 사람을 마주 좀 낮게 이르는 말)은 신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대명사용법으로 ‘당신, 자네’ 정도의 뜻이다.

⑥. 기심도 아니오 덜쥬도 아닌겨시(鬼, 下 32)

덜쥬 : 조선시대때 임금의 의복과 궁중용품을 공급하던 ‘尙衣院’이란 관청에 딸린 기생들의 총칭임. 속칭 ‘더벅머리’라고 하며 후대에 娼妓의 속칭으로 씀. —이는 신소설이 조선 후기 사회의 풍물환경을 반영함을 보여준다.

⑦. 쓸데업시 호들갑을 피다가(雉, 上 55)

이 단어는 오늘날 ‘호들갑’으로 주로 쓰이는데 ‘호들갑~호들갑’의 자유교체어형이다. 그런데 ‘호들—, 호들—’은 중세어 ‘호늘다’(뒤에 ‘흔들다’로 변천), ‘호들하다’(‘호뜻하다’의 뜻), ‘호들히’(‘호들하다’의 부사형)와 同系라 하겠다.

巢父 | 머리 호늘오(巢父掉頭, 杜詩諺解 22 : 51)

氣運이 흐를하야 흐는 이룰 通達히 흐리로다(氣韻達所爲, 杜詩諺解 15 : 45)

⑧ 원너편네가 도들을 드되고 올라셔논덕(雉, 上 90)

‘도+을’이 ‘디뎨매’의 뜻을 지닌 具象名詞로 쓰인 것이 주목된다.

⑨ 발씨 선 길에 길 잘못들기가 예사이지오(雉, 上 94)

발씨 : 발걸음이 길에 익은 정도.

⑩ 전후 푸렴을 도거리로 밧고 잇는 사람은(雉, 下 37)

도거리 : 몯을 만나누고 한테 몰아부치는 일.

⑪ 남순이가 푸절이 업시 뿌리치니(雉, 下 70)

‘푸절’(붙임성, 인정미의 뜻)이 없다’는 것은 쌀쌀하다는 뜻이다.

⑫ 어린 자식 길러니여 우리도 늙게 늬움보세(銀 41)

늬 : 자손에게 받는 덕/늬를 보다 : 자손의 덕을 입다.

신소설 표기가 ‘늬움’인 점에 미루어 동사 ‘늬우다’도 추정되나 예가 없다. ‘늬’는 중세어 ‘늬’(世上, 世代)가 의미변화된 결과 ‘後孫들로부터 입는 덕’이란 뜻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⑬ 본평부인이 실진이 되야서 계명오리갓치 되얏더라(銀 81)

계명오리 : ‘계명위리’의 변음. 계명위리 : 행실이 단정치 못한 계집을 욕하여 이르는 말. — ‘계명위리’의 어원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품행 안좋은 여자를 가리키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姣生이름으로 혼한 ‘桂月이·明月이’를 내리 발음하던데서 생긴 단어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이 단어는 한자어로 들 것이다.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용법은 언어에 일반적인 것으로 ‘姜太公, 洪吉童같다…’ 등이 있고 영어에서도 ‘McCarthyism, boycott…’ 등이 있다(1950년대 미국 공화당의 원 McCarthy의 공산주의자 숙청운동, 19세기 중엽 농민들에게 타도당한 아일랜드극족 Charles C. Boycott에서 각각 유래하였다). 다음 신소설 예의 ‘범강장달(范疆張達)이 같다’도 소설「삼국지」에 나오는 張飛를 죽인

완악한 인물 范彊張達이를 비유한 것이다.

범강장달이 갓흔 사람들을 지휘하야(雉, 下 50)

오늘날 ‘범강장달이 같다, 제명오리’ 따위는 老世代的 俗語표현이나 겨우 남아있다.

⑭ 덕분에 잡도리를 하러 드는더(紅, 上 11)

잡도리 :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거나 미리 준비시키는 일.

⑮ 다시 불사룩 니삿에서 신물이 나고(紅, 上 41)

니삿 : 이+살/살 : 틈. 갈라진 사이.

이 단어는 중세어에서도 ‘이틈’의 뜻으로 쓰였다.

니삿 뿌시디 말며(母刺齒, 小學諺解 3 : 26)

⑯ 늑게 와 지다위를 하러드러(紅, 下 113)

지다위 : 남에게 등을 대고 의지하거나 배를 쓰는 것. 또는 자기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

이 밖에도 ‘늑부지런, 잔부끄럽, 입내, 모지름, 집뺨, 선소리, 두멍, 동부레기, 살쩍, 당조짐, 등결잡, 너스레, 주럽, 만수받이, 혜잠, ...’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用言을 살펴본다.

2.2. 用 言

① 못싱긴 마음에 어기똥흔 싱각이 나서(血 5)

어기똥하다 : 말이나 짓이 엉뚱하다. —오늘날의 ‘엉뚱하다’는 여기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너도 놀보고 허라 하느거시 조흔 일이니 숯결게 너도 놀더러 허라하야라(血

71)

숫절다 : 순박하고 진실하다. 숫지다. —오늘날의 ‘숫제’ (ad. ‘차라리’의 뜻)는 ‘숫절다’의 부사형 *숫저비>*숫저비>*숫저이>숫제’로 볼 수 있고 이미 신소설에도 ‘숫지에’ 표기가 보인다.

숫지에 나와갓치 아들낫코 쫄 낫코 사갓고나(雜, 下 69)

③ 말은 것분 마음잇는 사롬이 먼저 넙쓴다(鬼, 上 12)

넙뜨다 : 일에 기운차게 앞질러 나서다. — ‘넙다’ (ad. 몹시 세차게)는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④ 것이느 녀넉하면 네 주렴이 덜홀터이나 것조춘 주저러우니 이 고성을 엇지향 잔말이나(鬼, 上 54)

주저롭다 : 구차하다. 싱싱하지 못하다.

⑤ 영절스럽게 그런 빙세를 지여(鬼, 上 66)

영절스럽다 : 보기에 참과같이 그럴듯하다.

⑥ 양바툼하고 뱀시조흔 암닭 훈마리를 가져 왔노더(鬼, 上 100)

양바툼하다 : 짤막하고 딱바라지다.

⑦ 침모의 머음이 솔곳하게 드러군다(鬼, 上 112)

솔곳하다 : 오늘날의 ‘솔깃하다’가 ‘솔곳—’으로 된 것인데 ‘송곳’ (錐)의 中世語形이 ‘솔웃’인 바 ‘솔곳하다’는 의미 유연성이 강한 ‘솔웃’에서 파생하여 오늘날 ‘솔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⑧ 무슨 일을 서슴다가난 아모것도 아니될터이니(鬼, 上 144)

‘서슴다’ (머뭇거리고 망서리다)가 오늘날 주로 ‘서슴없이’처럼 부정어와 호응하는 것과 달리 아직 ‘서슴다’의 활용을 보이고 있는 예인데 오늘

날 ‘서슴거리다, 서성거리다’는 同系語이다.

⑨ 춘천집을 허려서 하는 말도 잇고(鬼, 下 15)

오늘날 ‘헐뜯다’가 더 쓰이는데 비해 아직 ‘헐다’가 ‘非難’의 뜻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⑩ 칠팔잔을 바다먹고……웅송망송하며(鬼, 下 42)

웅송망송하다 : 정신이 흐리멍덩하다.

⑪ 고목은 굼트러지고 봄풀은 옥어젖는디(鬼, 下 54)

‘굼트러지다’는 사전에도 안 실렸는데 ‘굼틀, 꿈틀(—매다, —거리다)’와 同系로 보인다. 뜻은 ‘구부러지고 펴지다’ 정도로 이해된다.

⑫ 몇만원이느 마진듯시 희뻘게 돈을 쓰려하는디(鬼, 下 78)

희뻘다 : 실속은 없어도 마음이 넓고 손이 크다.

⑬ 다시 관수의게 빌붙는다(鬼, 下 88)

‘빌붙다’(남의 호감을 사려고 붙어 알랑거리다)는 중세어 ‘빌먹다·붙쫘다…’ 같은 조어방식의 잔존을 보인다.

⑭ 몸이 열씩고(鬼, 下 103)

열썩다 : 매우 재빠르고 날래다.

⑮ 문도 좁고 더위잡는 사름이 업느니라(털로 18b)

‘더위잡다’(붙잡다, 끌어잡다)는 中世語形이래의 모습이 그대로 아직 쓰인 예이다.

어느 餘暇에 서르 더위자브리오(豈暇相扶持, 杜詩諺解 2 : 55)

⑯ 세상에 권세있고 가멸고(털로 84b)

中世語 ‘가수멸다’의 발달형인 ‘가멸다’(부유하다)가 아직 쓰였음을 보여준다.

⑰ 무슨 생각을 하고 놓치는지(雉, 上 15)

놓치다 : 언짢았던 마음을 풀어 누그러뜨리다.

⑱ 엇지 그리 안차던지 놀나는 귀식은 조곰도 업시(雉, 上 58)

안차다 : 접이 없고 당돌하다. —이 단어는 요즘도 드물게 쓰인다.

⑲ 그 소리를 듯더니 실죽할 마음이 나서(雉, 上 59)

실죽하다 : 마음이 고까와 내키지 않다. —요즘은 ‘셀죽하다’가 쓰인다.

⑳ 사박스러운 움푹눈으로 부인을 흘금 건너보논터(雉, 上 82)

사박스럽다 : 보기에 독살스럽고 야멸차다.

㉑ 그년이 만일 너를 싣타고 왜장을 치거든 총으로 노아죽여(雉, 上 142)

왜장(을)치다 : 누구라고 맞대지 않고 헛되이 큰소리로 마구 떠들다.

㉒ 곡비도 길면 드되는 법이라(雉, 下 3)

속담 ‘고삐가 길면 밟힌다’를 ‘드되다’라는 단어로 썼는데 중세어 ‘드되다’(>디디다; 결국 ‘밟다’와 類義語임)의 잔존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발로 고초 드되여 서사(月印釋譜 1: 52)

오늘날 부사 ‘드디어’도 ‘드되다’의 파생잔형이라 하겠다.

㉓ 너가 휘휘하다고 너까진년을 부르닛가 그리셔 나를 겁만타고 비웃는 모양이 로군(雉, 下 8)

휘휘하다 : 무서울 정도로 쓸쓸하고 고요하다.

㉔ 두셔를 못차리고 울가망을 홀티이나(雉, 下 28)

울가망(을)하다 : 근심스럽거나 답답해하다.

㉕ 예그 망측하고 츄살스러워(雉, 下 36)

칙살스럽다 : 보기에 알뜰하고 하는 것이나 말이 잘고 다렵다.

㉞ 저러커니 십어 도로혀 풀쳐싱각을 호고 참고참아(雉, 下 58)

‘풀치다’(뻗힌 것을 돌리어 너그럽게 용서하다)는 중세어 ‘플티다’(‘플다’의 강세어)의 잔형이다. 그리고 ‘풀쳐생각’은 명사로 굳어져 ‘뻗힌 생각을 풀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뜻이다. 중세어 ‘플티다’의 예를 든다.

설워 플터 헤니 造物의 타시로다(松江, 續美人曲)

㉟ 그리 도섭스럽게구나(雉, 下 71)

도섭스럽다 : 도섭(주착스럽고 변덕스러움)을 부리는 티가 있어 보인다.

㊱ 그게 다 무슨 사위스런 소리요(雉, 下 84)

사위(미신으로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길까봐 어떤 말이나 사물을 꺼림)스럽다 : 미신적으로 마음이 불길하고 꺼림칙하다.

㊲ 찬이슬은 압집 양철채양에 흠치름하게 방울져 셔러질듯호고(松 3)

흠치름하다 : 깨끗하고 번들번들하여 윤이 나다.

㊳ 지미스럽게 담화를 호는디(松 48)

요즘은 ‘재미있게’가 쓰인다. ‘재미’에 ‘-스럽다’가 쓰인 것이 주목된다.

㊴ 엇구수하게 슈작을 건네며(警 4)

엇구수하다 : 하는 말이 이치에 그럴 듯하다. —이 단어는 중세어 ‘엇긔하다~웃긔하다’(‘香氣롭다’의 뜻)의 발달형으로 ‘엇긔하다’(香)의 어근 ‘엇긔-’이 3음절화된 것이다. 그 원인은 들췌음절 말음 s[s]의 強化로 음절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미도 변화를 입어 ‘향기롭다’는 뜻에서 많이 변화되어 ‘구수하다, 그럴 듯하다’와 같은 뜻으로 의미확대(extention)를 입은 것이라 하겠다. ‘향기롭다’는 뜻으로 중세어 ‘고스다’가 있고 ‘꽃’(花)과의 합성어로 보이는 ‘꽃고스다’도 역시 같은 뜻으로 쓰였으므로 ‘고

스다~꽃고스다~엇긧하다~웃긧하다'가 類義語라 하겠다. 오늘날의 '고소하다, 구수하다'도 물론 이들의 발달형이다.

고손 수리 꿀마티 드닐 노티 아니호리라(不放香膠如蜜甜, 杜詩諺解 10:9)
꽃고손 벼는 鸚鵡이 덕먹던 쌀나치 나벧고(香稻啄餘鸚鵡粒, 杜詩諺解 6:10)
고지서 글 음는 공지는 혼입시우리 엇긧하도록다(詠花公子一唇百, 百聯抄解 18)
좁은 혼갓 웃긧흔 것분 아니라 고흥로 말는 거술 다 니르니라(釋譜詳節 13:39)

'엇구수하다'는 다른 신소설에도 더 보인다

장씨의 말만 엇구수히 듯고(紅, 上 28)

㉔ 욕심이 흙쭈흔계 찾던지(銀 11)

현대사전에도 안 실렸으나 '滿足, 洽足'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흙쭈'와 同意관계이다.

㉕ 장차들은 혼이 셋든 쫓치라 쫓치덕에 사라듯하야 별안간에 소인을 개울리며 말을 혼다(銀 28)

이 단어도 현대사전에는 안 실렸는데 문맥상 '소인이라고 自稱, 謙稱을 하며 아침을 떨다'는 뜻이다. 구조상 '개다'와 '울리다'의 합성으로 보인다.

㉖ 약산동덕 야지러진 바위를 부르면서(銀 34)

'야지러지다'(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다)는 오늘날 '이지러지다'와 同系이다.

㉗ 궁아지를 무러박지르고(銀 114)

'무러박지르다'도 사전에는 안 실렸으나 '몰어 윽박지르다'의 합성으로 보인다.

㉘ 문닷어 버리고 폐점하기를 풀풀하니(鐵 78)

풀풀하다: 힘이 있고 성질이 팔팔하다. '팔팔하다'와 同系이다.

㉟ 에그·시장시려워타(紅, 上 3)

시장스럽다 : 시들하고 언짢다.

㊱ 계집아리가 그 동안 혼 공부만 하여도 무던하지 더 험서논 무엇을 하게(紅, 上 8)

‘무던하다’는 오늘날 주로 무난하고 유순한 性品묘사에 좁게 쓰이는 것과 달리 중세어에서는 ‘괜찮다, 可하다, 아깝지 않다’라는 넓은 뜻으로 쓰였음을 보여 오늘날은 의미가 축소(narrowing)된 것이다. 위 신소설 예는 아직 중세어 단계의미를 간직한 것을 보여준다.

衆生이 저근 惡을 므더니 너겨(月印釋譜 21 : 78)

㊲ 힘동거지가 준준무식홀 중 거염시렵고(紅, 上 14)

거염스럽다 : 倨慢스럽다.

㊳ 힘인이 썩 쓴쳐 어리친 기도 지나가지 안이 하니(紅, 上 48)

어리치다 : 독한 냄새에 취하다. — ‘어리치다’의 ‘어리-’를 중세어 ‘어리다’(愚, 迷)의 어근으로 추정할 때 ‘어리치다’는 ‘어리다’에 강제적 ‘-치-’가 붙은 것이 의미변화를 입은 것이라 하겠고, ‘어리-’(愚, 迷)에서 파생된 ‘어리병병하다, 어리둥절하다, 어른거리다, 어리어리하다, 으리으리하다, 어리숙하다, 아리송하다’ 등이 모두 恍惚·迷亂상태의 의미를 갖고 있다.

㊴ 비나리칠 것도 당장 경무청으로 보니여 하늘이 넙흔 구경을 식여야 헛겜네(紅, 上 55)

비나리치다 : 아침해서 환심을 사다. — ‘비나리’의 어원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빌다’(祈)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㊵ 도담시려온 시동집은 종시도 계 발뺨을 헛라던지(紅, 下 111)

도담스럽다 : 탐스럽고 아담하게 도드라지다.

적이 나면 : 형편이 다소 우연만 하면.

⑤ 그러면 일것 사년이나 공부를 홍도가(紅, 上 8)

일것 : 일삼아 이때껏. 일부러. — 요즘도 老世代는 사용하며 ‘기껏’과 類義語이다.

⑥ 수가 문청문청는 사람이 몇친지 모르는 판이라(銀 34)

문청문청←문척문척 : 자꾸 갈라지고 끊어지는 모양. ‘문척문척’의 거센 말. 오늘날은 이것의 변음으로 보이는 ‘몽텅몽텅’(몽턱몽턱)이 더 쓰인다.

⑦ 그예 큰소리가 나게 하고야 말지(紅, 上 12)

그예 : 마침내. 드디어. — 오늘날은 ‘마침내, 드디어’가 쓰이고 ‘그예’는 사라졌다. 혹시 ‘그예’를 이것과 音相이 비슷한 한자어 ‘기어(期於)’의 축약변이음으로 보기 쉬우나 의미차가 있는 별개의 단어이다. ‘그예’는 ‘結果’중심의 표현이고 ‘기어이’는 ‘意志’중심의 표현일 뿐이다.

⑧ 여보 바로 엇줍구려. 벌써 알르시고 무르시는데 으밀아밀 흘 것 무엇잇소(紅, 下 21)

으밀아밀 : 비밀히 이야기하는 모양. — 오늘날의 ‘우물우물’과 同系로 對話 및 行動관계에서의 은밀함을 뜻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

가면 으밀아밀이 가겠소(紅, 下 59)

⑨ 마암이 홍숭실숭하 지 안이하겠소(紅, 下 60)

‘싱숭생숭’이 당시는 위처럼 적힌 것인데 ‘홍—실—’은 한자어원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만하다.

지금까지 살핀 신소설에서 드러난 여러 고유어들은 거의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들 또는 지금과 다른 표기형들로 그중 상당수가 중세어형과 그 발달형인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오늘날 되살려 쓸만한 것도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유어 외에 우리 국어의 [큰 어휘재인 한자어들

도 신소설에서 상당수 쓰이던 것이 오늘날 소멸된 예를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어 다음에 이를 간략히 살펴 본다.

3. 신소설에서 자주 나타났거나 또는 비교적 어려운 한자어로서 지금은 소멸된 것들의 일부 예를 들어 본다.

① 마음이 홀지에 변하야(血 2)

홀지(忽地)에 : 갑작스레. 猝地에.

② 아무 혈절이 업스니(血 24)

혈절←흠절(欠節) :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③ 육년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血 70)

천연(天然)히 : 自然스럽게. — 오늘날은 ‘天然(덕)스럽다’가 남아 쓰이고 있다. 오늘날 ‘自然히’가 많이 쓰이나 신소설에서는 ‘天然히’가 주로 쓰인 것도 특징이다.

④ 절인이라도 겨관없다(鬼, 上 13)

겨관없다 : ‘관계(關係)없다’의 도치형으로 신소설에서 자주 쓰인 단어이다.

악담을 헛기로 겨관이 잇오(雉, 上 17)

⑤ 김승저의 부탁을 혈후히 여기는 것도 아이오(鬼, 上 49)

혈후(歇后)히 : 대수롭지 않게.

⑥ 서방이 시르면 표차롭게 갈라서서(鬼, 下 15)

표(表)차롭다 : 여럿 중에 드러내놓고 두드러지게 하다.

⑦ 김승저를 가라 마실드시 폭백을 풀풀하던 강동지의 마누라가(鬼, 下 51)

폭백(暴白) : 분한 사정을 하소연함.

⑧ 오활하고 공교호 말에(턴로 90b)

오활←우활(迂闊) : 곧바르지 않고 사리에서 벗어남.

⑨ 수삽호 말로 대답호되(雺 5)

수삽(羞澁)하다 : 부끄러워하다.

⑩ 배순이 강잉히 우으며(雺 16)

강잉(強仍)히 : 마지 못해.

⑪ 빅성을 살릴 심각이 도저호나(銀 95)

도저(到底)하다 : 정도가 깊다. — 오늘날 ‘도저하다’는 사라졌으나 그
부사 ‘도저히’는 남아 쓰인다.

⑫ 여간 높은 정신취릴 슈가 업시 드러오호되(雺, 上 53)

‘여간’(如干)은 ‘보통의’라는 뜻으로 오늘날 否定文과 호응하고 체언
(N)을 직접 수식하지 않으나, 신소설에서는 위 예처럼 체언을 직접수식
하거나 다음 예처럼 긍정문과 호응하는 예가 있어 統辭의 기능의 변천을
보인다.

여간 좀 연구호야 아논거시 잇거든(금수회의록 22)

여간 소로에 틀니드리도 드른테 만테 홀 것이오(紅 11)

⑬ 우이 쓸터업논 설폐만 호나나(雺, 上 74)

설폐(說弊) : 폐단을 말함.

⑭ 남의 자식을 악착호 죽음을 시키면(雺, 上 100)

악착(齷齪)하다 : 끔찍하다. — 오늘날은 ‘악착같이, 악착스럽다’가 쓰
이며 뜻도 ‘지독히, 끈기있게’ 정도로 쓰여 ‘끔찍하다’의 뜻은 사라진 것
으로 보인다.

⑮ 호로라도 더 살려두면 모양만 점점 더 수통호지(雺, 上 104)

수통(羞痛)하다 : 수통스럽다. 분하고 원통스럽다.

⑯ 니가 서방질하는 것을 제 눈팔로 적실히 보았남(雉, 下 40)

적실(的實)히 : 확실히.

⑰ 범정에 드러가서 발괄이라도 하리다(雉, 下 113)

발괄←白活 <吏讀語> : 관청에 하소연 하기.

⑱ 박사과는 갈 배포하여 가고(松 6)

배포(排布) : 마음속으로 일을 이리저리 계획함. — 오늘날도 ‘배포가 유하다’ 등에 쓰인다.

⑲ 고순돏치도 제 삭기는 함함하다고 홀다하나(警 31)

함함(含含)하다 : 털따위가 부드럽고 반지르하다. — 중세국어에서도 이 단어는 ‘흙흙하다’로 나타난다.

터릿비치 흙흙하고 조하시니(月印釋譜 2 : 58)

‘빛나고 반지르하다’는 뜻에서 ‘쓰다듬고 귀히 여긴다’는 뜻으로 발전한 것 같다.

⑳ 병환이나 얼른 평복이 되섯스면 죠켓네(紅, 上 40)

평복(平復) :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됨.

㉑ 그 사툼이 조곰도 국축지 아니하고(紅, 上 56)

국축(蹶縮) : 마음이 황송하여 몸을 굽힘.

㉒ 애우진 호령드른 일이 일상 앙앙해서(紅, 下 19)

앙앙(怏怏) : 마음에 앙심을 품은 모양.

㉓ 리씨부인이 억색혼 마음을 익이지 못하야(紅, 下 40)

억색(臆塞) : 몹시 원통해 마음이 답답함.

㉔ 그 동탕(動蕩) 심과장의 얼굴이(紅, 下 98)

동탕(動蕩) :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아름답다.

㉕ 응용조처(雍容措處) 도리가 잇스니(紅, 下 114)

응용조처(雍容措處) : 和樂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함.

㉖ 공번되고(公反) 울흔 일을 힘(內訓, 60a)

‘공평하다’는 뜻의 단어로 중세어이래 개화기 때도 자주 쓰인 것이다. 內訓의 ‘公反^ㄷ외음’으로 미루어 한자어로 추정된다.

아름으로써 公反^ㄷ외요되 廢티 못하야(內訓 2 : 20)

그 밖에 소료(所料), 색책(塞責), 토심(吐心), 계연(係戀), 자락(恣樂) 술발(鏗發) 놓다, 소조(所遭), 당고(當故), 이심(已甚)스럽다, 착악(錯愕)하다, 비월(飛越)하다, 천착(舛錯)하다, 현앙(軒昂)하다, 주작(倣作)하다, 엄적(掩迹)하다……등 생소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들이 口語體의 신소설 그것도 對話體 부분에 자연스레 도입 구사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작가 개인의 한문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言衆의 어휘부에 한자어의 폭이 매우 넓었기에 당연히 소설에도 자연스레 반영된 결과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런 한자어들은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생소하고 어려워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것이 원인의 전부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도 어원의식 없이 지금까지 잘 쓰이는 ‘억울(抑鬱)하다, 앙심(怏心)품다, 어색(語塞)하다. 휘황찬란(輝煌燦爛)하다, 구차(苟且)하다, 야속(野俗)하다…’ 등이 있기 때문이다.

4. 이상에서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살핀 개화기 국어의 고유어·한자어의 모습을 통해 고유어에서는 중세·근대 국어의 어휘부를 반영하는 많은 語例의 확인과 더불어 그렇게 오래 보존되어 오던 단어들도 현대 국어

에 와서 크게 변화를 입어 많은 고유어들이 급격히 소멸되었음을 새삼 절감하며, 한자어 역시 신소설의 구어체에 크게 반영되었으나 오늘날은 사라진 것들이 매우 많음에 언어의 변화 특히 어휘부의 동요와 변천이 개화기 국어이래 현대 국어에 와서 그 정도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의 문명·문화의 변화속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외래어가 범람하고 고유어의 생명력이 줄어든 오늘날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사라진 고유어를 의도적으로 되살리는 노력이 작가 등에 의해 실천된다면 신소설 및 고전은 많은 고유어를 남기고 있으니 큰 힘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믹·ㄴ롬’이 ‘산·강’에 의해 사라졌듯 오늘도 우리가 쉬운 예로 고유어 ‘나라·겨레·아버이·달걀…’ 등보다 한자어 ‘국가·민족·부모·계란…’ 등을 더 쓴다면 이들 고유어도 머잖아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의 고유어에 대한 꾸준한 사랑이 아쉽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沈在箕(1982), 國語彙論, 集文堂
- 李基文(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한국문화연구소
- 朴鍾哲(1980), “開化期 小說의 言語와 文體”, 『開化期文學論』(李在銑 外:형설출판사) 所收
- 拙 稿(1984), “開化期 國語의 文體—신소설·개화기 교과서의 어휘를 중심으로”, 江陵語文學 1집, 江陵大 國語國文學科
- _____ (1986), “開化期 國語의 語彙(Ⅱ)”, 국어교육 53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